

# 초등초임교사 심층면담을 통한 교직과목에 대한 인식과 개선요구

김주영<sup>1</sup>, 김경남<sup>2</sup>, 박정환<sup>1\*</sup>  
<sup>1</sup>제주대학교 교육학과, <sup>2</sup>인화초등학교

## Perception and Improvement Needs on Teaching Profession Course - An In-depth interview Study with Novice Elementary Teacher

Jooyeong Kim<sup>1</sup>, Kyoung-Nam Kim<sup>2</sup>, Jung-Hwan Park<sup>1\*</sup>  
<sup>1</sup>Jeju National University Educational Department  
<sup>2</sup>Inhwa Elementary School

**요약** 본 연구는 초등초임교사 대상 심층면담을 통해 교직과목에 대한 인식과 개선요구를 탐색한 연구이다. 연구 결과 초등초임교사들은 교직(이론)을 “왜 배우는지 모르는”, “일방적인 이론강의”로, 교육실습은 실제적인 학생지도나 교수역량을 향상하기에는 너무 부족한 “현장 맛보기” 수준으로 평가했고, 교육봉사는 “알아서 시간 채우기” 바쁜 과목으로 평가했다. 초임교사들은 교직과목의 문제점으로 단편적이고 분절적인 교육과정, 현장과의 연계 부족, 실천과정에 대한 무관심, 교사교육자의 문제를 제기했으며, 개선방안으로 현장 기반 교육과정, 다양한 현장 경험 확대, 현장 연계 프로그램 및 지원 강화를 제안했다.

**Abstract** In-depth interviews were conducted by enrolling novice elementary teachers to understand and improve the courses offered during elementary teacher's training. According to the research results, novice elementary teachers perceived pedagogical (theoretical) subjects as being “unclear in purpose” and “overly theoretical”. They considered the educational practicum as merely a “brief touch of the field”, insufficient for genuinely enhancing student guidance or teaching skills. Moreover, educational volunteering was perceived as a course where they are simply left to “kill time” on their own. The novice teachers further indicated that the fragmented and segmented curriculum, lack of connection with the field, indifference to the practical process, and problems with teacher educators were issues with pedagogical subjects. They suggested a field-based curriculum, expansion of various field experiences, and strengthening of field connection programs and support as solutions for improvement.

**Keywords** : Teaching Profession Course, Teaching Subject, Novice Teacher, Teacher Training, University of Education

### 1. 서론

미래사회 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교육체제로의 전환 요구가 높아짐에 따라 교육현장 혁신을 성공적으로 이끌 수 있는 교원을 양성하는 일 역시 더욱 중요한 일이 되었다. 그러나 현행 교원양성과정은 교사가 현장에서 수행

해야 할 실제적인 역량을 갖추는 데 도움이 되지 못한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초임교사들은 “교대에서 배운 것이 하나도 없이 교사가 되었다”[1]고 자조할 정도로 교원양성 교육과정이 교직수행에 도움이 안된다고 평가하고 있으며, 예비교사 역시 임용시험과의 괴리와 학교 현장과의 연계 부족 등의 어려움을 호소하며 불만을 표현하고

본 논문은 2022학년도 제주대학교 교원성과 지원사업에 의하여 연구되었음.

\*Corresponding Author : Jung-Hwan Park(Jeju Univ.)

email: edu114@jejunu.ac.kr

Received July 17, 2023

Revised August 8, 2023

Accepted August 10, 2023

Published August 31, 2023

있다[2,3]. 교원양성과정의 내실화와 개편을 주장하는 선행연구들은 교원양성 교육과정이 학교 현장과 괴리되어 있으며, 교사가 현장에서 수행하는 실제 직무를 반영하고 있지 못하다는 문제를 지적하고 있다[4-6].

특히 교직과목은 교원양성과정에서도 가장 개선이 필요한 과목으로 지적되고 있다. 많은 예비교사들은 교직과목이 교사로서의 교육에 대한 안목과 교사로서의 전문성 향상을 위해 필요한 과목이라는 것을 대체로 인식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3,7], 전공수업을 들으며 남는 시간에 “적당히 이수”해야 하는 “상징적인” 과목으로 인식하는 등 그 유용성을 낮게 평가했으며[8,9], 사범대에 비해 교육대 학생들이 더 부정적으로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10]. 현직교사들 역시 교직과목을 “교직수행에 거의 도움이 되지 않는”, “남는 것이 없는 과목”이라고 평가하고 있었다[11,12]. 선행연구들은 교직과목이 교육현장과 유리된 채 지나치게 이론적·학문 중심으로 가르쳐지고 있으며, 교직과목과 전공과목 간 연계성과 통합성이 부족한 점, 교직과목 대부분이 전담교수 확보가 되지 않은 채 시간강사가 담당하고 있는 등 교직과목 개선이 쉽지 않은 운영 상의 여건 등을 문제로 지적하고 있다[10,13,14].

사실 교직과목에 대한 이러한 문제들은 2000년대 초반에 이루어진 연구부터 반복적으로 지적되온 문제임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 충분한 해결책이 제시되지 못한 채 논의가 반복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2021년 교육부의 초·중등교원양성체제 발전방안을 통해 교육실습 학기제 도입 등 교육현장과 연계를 강화하겠다는 정책을 발표했지만, 실제 교사교육 현장에서의 실효성 있는 개선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보다 구체적인 논의와 연구가 필요할 것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본 연구는 교직과목의 개선방안에 대한 시사점을 찾기 위한 탐색적 연구로서 초등 초임교사에 대한 심층면담을 통해 구체적인 교직과목에 대한 문제점과 개선요구를 확인하고자 했다.

기존의 교직과목에 관한 연구들은 주로 교원양성체제 개편이나 교육과정 개선방안을 다루면서 교직과목의 문제를 함께 다룬 경우가 많았다. 교직과목 전반을 다룬 연구들은 주로 교직과목에 관한 인식과 개선요구를 분석한 연구가 대부분인데, 주로 예비교사의 수강경험을 다룬 연구가 많았다[3,5,7-9,15]. 현직교사나 초임교사를 대상으로 한 연구는 교사양성과정 전반에 대한 경험과 인식을 다루거나[2,12,16,17], 교직실무, 학교 현장실습과 같은 개별 과목에 대한 연구가 있었을 뿐[18,19], 교직과목 전반을 조사한 연구는 찾기 어려웠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초임교사 - 그중에서도 초등초임교사를 대상으로 연구를 수행하였다. 연구대상을 초등초임교사로 선정한 이유는 예비교사의 경우 교육실습 등 제한된 기회를 통해 교실 현장을 경험한 것 외에 실제 교직수행 경험이 없기 때문에 교직과목에 대한 현장유용성을 판단하기에 한계가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초임교사는 경력교사에 비교해서도 비교적 최근의 교직과목 수강경험을 갖고 있기 때문에 보다 구체적인 교육과정에 대한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제시해줄 수 있다고 판단했다. 또 교직과목이 초·중등 교원 공통 이수 과목이긴 하지만, 초등과 중등 교사가 직무를 수행하는 맥락 자체에 상당한 차이가 있고, 선행연구에 의해 교직과목에 대한 태도 역시 차이가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기 때문에[10], 초등초임교사에 한정하여 연구를 수행했다.

본 연구의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첫째, 초등초임교사들은 교직과목 수강경험은 어떠한가?

둘째, 초등초임교사들이 생각하는 교직과목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은 무엇인가?

## 2. 연구방법

심층면담(In-depth Interview)은 연구 참여자의 생생한 경험을 깊이 있게 탐구할 수 있는 방법이다. 연구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본 연구에서는 초등초임교사들이 입직 후 실제 교직수행을 할 때 교직과목 수강이 도움이 되었는지를 확인하고, 교직이론 및 소양, 교육실습 등 교직과목 유형별로 교직과목 수강경험에 대해 질문했다. 또 현장의 경험을 바탕으로 교직과목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제안하도록 하고, 그 결과를 질적으로 분석한 후 그 시사점을 해석하였다.

### 2.1 연구 참여자

Table 1. Demographic characteristics of study participants

ID	Gender	Age	Experience	ID	Gender	Age	Experience
r01	F	20s	2Y10M	r09	F	20s	1Y
r02	F	30s	2Y6M	r10	M	30s	1Y11M
r03	F	20s	2Y6M	r11	M	30s	2Y 5M
r04	F	20s	2Y11M	r12	F	20s	2Y
r05	M	20s	1Y2M	r13	F	20s	11M
r06	M	20s	1Y	r14	F	20s	11M
r07	F	20s	3Y6M	r15	F	20s	1Y11M
r08	F	20s	1Y11M	r16	F	20s	3Y

경력 4년 미만의 초등 초임교사 16명을 목적적 표집 (Purposive Sampling)을 통해 섭외하고, 연구목적과 방법을 설명한 후 연구동의서를 받아 심층면담을 수행하였다. 연구 참여자 16명 중에는 특수교사가 1명, 사서교사가 2명, 기간제교사가 2명이 포함되어 있었다.

## 2.2 자료수집 및 분석

자료수집은 연구 참여자들에게 사전질문지를 미리 제공한 후 90분간 1회씩 반구조화 인터뷰를 수행했다. 면담은 2022년 코로나가 아직 진행 중이던 시기에 진행되었기 때문에 온라인 화상회의(Zoom)를 통해 수행되었다. 연구자들은 연구참여자들이 온라인 상에서 연구문제와 관련된 경험을 보다 원활하게 회상하고, 다양한 의견들을 편안하게 이야기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사전에 친분이 있거나 경험과 배경이 유사한 참여자를 2명씩 짝지어 면담을 수행하였다.

면담내용은 비디오 자료로 녹화한 후 전사한 뒤, 전사된 내용을 읽으며 개방코딩을 수행한 다음, 코딩된 내용을 반복적으로 비교분석하며 범주화를 수행했다. 자료분석은 Alasti 9.0을 활용하여 진행되었다.

연구자 3인은 모두 교직교수자로서 교육공학 전공자 1인과 현직 초등교사인 연구자 1인이 각자 코딩한 내용을 교차 검토하고, 서로 의견이 다른 부분에 대해서는 정기 회의를 통해 맥락과 의미를 재확인하고 조정하였다. 또한 분석된 내용과 관련해 교육공학과 교수인 교신저자의 검토를 통해서 연구의 신뢰성과 타당성을 확보하고자 했다.

## 2.3 연구 윤리 관련 사항

연구 참여자 개인의 경험과 의견을 수집하는 인간 대상 연구로서 IRB 심사를 통해 연구계획을 승인받은 후 (JJNU-IRB-2022-012), 연구 참여자 모집 및 면담을 수행했다. 특히 면담내용 전사를 위해 온라인 화상회의 녹화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사전에 연구 참여자들에게 관련 사항을 안내했으며, 면담 시 실명이 아닌 대화명을 사용하도록 하고 비디오 노출을 원하지 않는 경우 오디오로만 참여하도록 하는 등 개인정보와 관련한 보호 조치를 함께 취하였다.

## 3. 심층면담 결과 분석

초등초임교사에 대한 심층면담 내용을 분석한 결과 총 3개의 영역에 대해 8개의 범주와 20개의 하위 범주, 62

개의 코드가 도출되었다.

Table 2. Cross-analysis results of in-depth interviews on the Teaching Profession Courses

Domain	Category	Sub-category	Code
Challenges and Coping Strategies at the Beginning of School Fieldwork	Challenges during the Beginning of School Fieldwork	Emotions Felt at the Start of the Classroom Experience(4)	Feeling Unprepared, Overwhelming Uncertainty, Being Flustered, and Erratic Actions.
		Reasons for the Challenges(4)	Discrepancy Between Theory and Actual Classroom Experience, Difficulties in Understanding and Guiding Students, Diverse Tasks Beyond Teaching, Lack of Teaching Skills and Confidence.
	Overcoming the Challenges	Methods that Helped Overcome the Challenges(4)	Advice and Feedback from Senior Teachers, Participating in Training and Consulting, Collaborative Learning with Fellow Teachers, and Self-research Through Personal Experience.
Beneficial or Memorable Courses	Beneficial or Memorable Courses	Helpful Courses(3)	Educational Practicum, Teaching Theory (Educational Psychology, Educational Philosophy), None (Major courses mentioned)
		Memorable Courses(4)	Classes with direct activities (discussions, practices, demonstrations), Classes hearing from current teachers' field experiences, Classes utilizing diverse teaching methods.
	Experience in Taking Teaching Profession Courses	Teaching Theory and Professional Disposition	Courses with Unclear Purposes(3)
Instructor-centered Theoretical Lecture(2)			Explanation-focused lectures, Lack of feedback and interaction.
Educational Practicum		Opportunities for Practical Skill Enhancement (3)	Establishing a blueprint for being a teacher, Experience observing actual student guidance, Improving teaching ability through on-site execution and feedback.
	"Taste-Testing" Field Experience(4)	Passing events like assignments, "For show" classroom observations, Severely limited teaching opportunities, Insufficient time to fully understand and prepare for students.	
Educational Service	Merely Assisting Roles(3):	Assisting in program execution, Tutoring and mentoring, Overseas educational volunteering.	

Domain	Category	Sub-category	Code
Issues and Improvement Ideas for Teaching Profession Courses		Real Student and Field Experience(3)	Opportunities to interact with real students, Indirect experiences in the educational setting, Interactions and advice from senior teachers.
		Time-Wasting Mandatory Subjects(3)	Subjects merely to fulfill time requirements, Educationally meaningless tasks, Lack of structured programs and support
	Issues	Pragmated and Segmented Curriculum(4)	Unsystematic curriculum, Lack of integrated approach to non-teaching tasks, Segmental approach focused on individual lessons, Emphasis on teaching "predetermined" skills.
		Insufficient Linkage to the Field(2)	Content unrelated to real-world needs, Lack of opportunities to receive field experiences.
		Indifference to the Practical Process(2)	Only teaching theory and expecting self-sufficiency, Lack of opportunities for teaching practice and feedback.
		Issues with Teacher Educators(2)	Lack of expertise, Lack of understanding of the field.
	Improvement Ideas	Field-Based Curriculum(4)	Lessons where learned content can be applied in real situations, Learning knowledge and skills needed in the actual field, Emphasis on curriculum restructuring.
		Expansion of Diverse Field Experiences(4)	Opportunities needed to guide various students, Opportunities needed for diverse class observations, Need for expanding real-classroom teaching opportunities, Providing experiences as a "homeroom teacher"
		Strengthening Field-Linked Programs and Support(5)	Expansion of programs linked with school settings, Systematic program needed, Enhancing information provision for volunteering and practice, Strengthening mentoring from senior teachers.

### 3.1 영역 1: 입직 시 어려움과 극복방법

초임교사들은 입직 후 스스로 준비되지 않았다고 느끼며, 좌충우돌하며 막막하고 당황스러운 감정을 느낀다고 말했다.

사실 어떻게 가르쳐야 되는지를 많이 배우지 못했던 게 아쉬워서... 학교 현장에 갔을 때 처음부터 다시 공부하는 느낌이라 좀 많이 버거웠거든요. (r08, 03:59)

무엇보다 학교에서 배운 이론과 다른 현장의 특성으로 인하여 학생 파악과 지도의 어려움뿐만 아니라 수업 스킬 및 자신감 부족, 수업 외의 다양한 업무 등으로 인해 어려움을 느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론상으로는 배웠지만 실제로 맞닥뜨렸을 때 아이들 특성에 대해 구체적인 사례나 실질적인 경험이 부족했기 때문에 하루하루 겪는 놀라움과 그런 당황스러움... (r04, 04:33)

이러한 어려움을 극복하는 데 도움이 된 방법으로는 선배교사의 조언과 연수 및 컨설팅 참여, 동료교사와의 학습공동체 활동 등이 언급되었으며, 특히 스스로 경험하며 연구하는 것이 도움이 되었다고 했다.

### 3.2 영역 2: 교직과목 수강 경험

교직과목 중에서 교직수행에 도움이 된 과목으로는 절반 이상의 참여자가 "교육실습"을 언급했으며, 기억이 남는 수업은 토론이나 실습, 수업시연 등을 직접 해보거나 현직교사의 경험을 들을 수 있었던 수업이라고 응답했다.

과목별 수강경험에 대해 물었을 때, 먼저 교직이론 및 교직소양 과목에 대해서는 "왜 배우는지 모르는", "일반적인 이론 강의"라고 응답했다.

진짜 그냥 앉아서 그냥 교수님들 이야기하는 거 받아 적고 밑줄 치고 "그냥 이렇구나"하고 마는... 대부분 그런 수업이었고... (r01, 31:18)

교육실습 과목에 대해서는 실제 현장에서 수업을 진행하고 학생을 지도하는 경험을 통해 실질적인 역량을 향상할 수 있는 기회였다고 평가했다. 그러나 실제로 학생을 충분히 파악하고 준비할 수 있는 절대적 시간이 부족하고, 현장에서 수업이나 학생지도를 맡아서 해볼 수 있는 기회도 제한적으로 주어진다는 점 때문에 "숙제하듯 지나가 버리는", "현장 맛보기 이벤트"라며 아쉬움을 표현했다.

그때는 그냥 아무 생각 없이 했는데 지금 현장에 나와 보니까 '너무 적다... 4년이나 다녔는데 어떻게 이 정도 밖에 안 주어지지?'라는 생각이 들어요. (r10, 56:09)

교육봉사 과목은 부족한 교육현장에 대한 경험을 채울 수 있는 기회로서 "실제 학생"을 경험할 수 있고, 선배교사와 교류와 조언을 얻을 수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그러나 해외 교육봉사 등 특별한 프로그램에 참여한 일부를 제외하고는 대부분 프로그램 진행 보조사

학습지도 보조와 같은 단순 보조 역할만을 수행한 경우가 많았으며 뭔가를 배운다기보다는 의무적으로 “정해진 시간을 알아서 채워야 하는” 과목으로 인식되고 있었다.

진짜 그냥 “노동”, 봉사이기 때문에... 그 과정에서 뭔가 배우는 것보다. 교사가 될 거면 이 정도 노동력은 제공해야지, 그런 느낌... (r06, 51:47)  
어쨌든 의무 이수과정이잖아요. 뭔가 유의미한 활동을 찾으려고 노력하기보다는 좀 효율적으로 (해야 하는)... (r14, 50:49)

### 3.3 영역 3: 교직과목 문제점과 개선방안

교직과목의 문제점에 대해서는 단편적이고 분절적인 교육과정, 현장과의 연계 부족, 실천과정에 대한 무관심, 교사교육자의 문제가 지적되었다.

먼저 분절적이고 단편적인 교육과정의 문제에 대해 살펴보면, 참여자들은 초등교사양성 교육과정 내의 과목 간의 중복성 등 체계적이지 못한 교육과정의 문제를 지적했으며, “정해진 것”을 가르치는 스킬에만 초점을 맞추고, 수업 외 교사 업무에 대한 통합적 접근이 부족하다는 점, 지나치게 단위 차시 중심의 분절적 수업에 집중하는 등의 문제로 현장 수업 및 학급 운영에 있어 맥락적이고 통합적인 접근을 어렵게 한다며 비판했다.

수업적인 측면 외에도 아이들과 라포 형성이 어떻게 돼 있는지 내지는 이제 우리 반의 분위기가 어떻게 흘러가는지 학급 규칙을 어떻게 정했는지에 따라서 각각 각 수업 진행 방식도 달라지고 수업 구성 방식도 달라지는데 그런 것들이 좀 유리된 채로 있는 거죠... (r05, 04:05)  
실습하는 입장에서는 한 차시만 수업하게 되니까 그 안에서 수업을 완결시켜야죠. 그래서 그 안에서 생각해 열게 하고, 동기유발도 하고, 의견도 나누고, 별의 별걸 그 안에서 하려다 보니까, 보통 많은 경우에 실습 나가서 시간 부족에 문제를 많이 겪거든요 (r06, 10:00)

현장의 연계 부족도 중요한 문제로 지적되었다. 실제 교실 현장에서 중요한 내용이 다루어지지 않거나 현재 학교에서 활용되지 않는 내용을 답습하는 등 현장변화를 반영하지 못하는 교육과정 내용과 현장의 경험을 전달받을 기회가 부족하다는 의견이었다.

다들 졸업하고 하는 말이 너무 교대 때 배운 게 없다. 교대랑 학교랑 대체 무슨 상관인지 모르겠다. 이런 얘기를 많이 거의 많이 나누거든요. (r09, 01:09:25)

실천 과정에 대한 무관심도 중요한 문제로 지적되었

다. 교사의 핵심적 역량인 수업 역량에 관해서도 실습 및 피드백 기회 자체가 부족하며, 수업에서는 이론만 알려주고 스스로 과거의 경험 등을 떠올리며 알아알음 알아서 해야 하는 문제를 지적했다.

시연해라, 발표해라 하는데 저희도 하나도 모르는 상태에서 하는 거고, 그럼 이제 선배들이 했던 거 조금 변형하고... (중략) “이게 맞나? 이렇게 해도 되는 건가?”, 진짜 어렸을 때 받았던 수업을 생각하면서 하는 기본이예요. (r01, 53:51)

이러한 과정에서 교직과목을 담당하는 교수자의 전문성 부족과 현장 이해 부족 문제도 지적되었다.

일반대학원 졸업하고 박사과정 밟고 오시는 분들이라, 현장에 적합한 어떤 설명이나 이런 게 거의 없고... (r11, 32:27)

참여자들은 이러한 문제점 해결을 위한 개선방안으로 교실 현장에 기반한 교육과정, 다양한 현장 경험 확대, 학교 연계 프로그램 및 지원 강화를 제안했다. 먼저, 참여자들은 교육과정과 관련해 실제 학교 현장에서 교사에게 필요한 지식과 스킬에 대한 학습이 필요하며, 특히 교육과정 재구성 등을 강조하는 현장의 맥락을 반영해야 할 필요가 있고, 배운 내용을 실제 적용해볼 수 있는 수업을 통해 예비교사들이 현장에서의 실천적 맥락과 성격을 파악할 수 있도록 도와주어야 한다는 점이다.

저희가 배운 걸 실제로 만들어낼 수 있는 과정이 더 있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어요... (중략) 거기에 대한 교수님들의 피드백과 현장 교사들의 실제적 피드백을 많이 받을 수 있도록... (r08, 40:52)

또한 다양한 현장 경험 확대의 필요성에 대해 언급했다. 직접 현장에서 수업할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해야 할 필요 외에도 다양한 학생을 만나서 지도할 수 있는 기회와 다양한 수업을 참관할 기회가 필요하다는 점이 언급되었으며, 단순히 수업만 하는 것이 아니라 예비교사가 “담임교사”로서 주도적으로 학급경영을 체험해 볼 수 있는 기회도 제공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진짜 내가 교사가 돼서 해보는 느낌으로 아침에 등교하자마자 내가 교사 책상에 앉아서 그다음에 아침 자습관리도 하면서 하루를 그냥 쪽 해보는 시간도 가지면 좋을 것 같다... (r03, 46:32)

학교 현장과의 직간접적인 연계를 통한 다양한 프로그

램 운영 및 지원 강화 필요성도 제안되었다. 교육봉사 과목의 경우 학교 현장의 요구에 기반한 교육봉사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제공하고, 교육과정과 연계한 체계적인 프로그램으로 운영하면 예비교사들에게 부족한 현장 이해와 적용 경험을 높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를 위해 예비교사가 교육봉사 및 실습에 참여할 수 있는 정보제공을 강화해야 할 필요성이 제기되었으며, 직접적인 현장 체험 외에도 선배교사와의 멘토링 등을 통해 현장 이해를 높일 수 있는 지원 프로그램이 제공될 필요가 있다고 했다.

학교에서 교육봉사를 보내기 전에 “이렇게 하면 좋다”, “다문화 멘토링이 이런 목적이다”, 그래서 “너희가 가면 이런 걸 도와주고...” 그런 연수도 진행하면 좋을 것 같고요. (r11, 49:16)  
 교육봉사 동아리 수준에서가 아니라 학교 단위에서 연계해서 가는 (교육봉사) 프로그램 있었으면 어땠을까... (rp05, 54:05)

#### 4. 교직과목 개선을 위한 시사점

##### 4.1 초임교사의 어려움과 교직과목의 문제점

면담을 통해 범주화된 코드를 기반으로, 참여자들이 인식한 교직과목의 문제점과 그들의 교직과목 수강 경험, 그리고 현장에서 겪은 어려움과의 관련성을 연결하여 Fig. 1과 같이 시각화한 후 선행연구와 비교하여 시사점을 분석해보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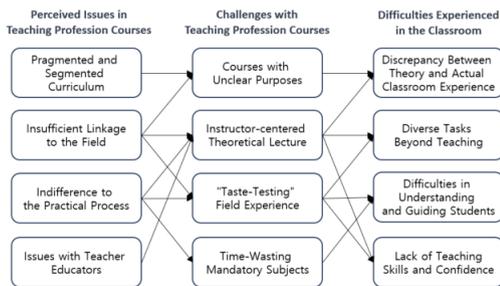


Fig. 1. Visualization of analyzed results

여러 선행연구에서 “달달 외우는 이론과목[4]”, “오래된 서양이론[12]”, “학점 취득을 위한 피상적 이론학습[2]” 등으로 언급된 것처럼 본 연구의 참여자들 역시 교직과목을 “왜 배우는지 모르는”, “일반적 이론 강의”라고

평가했다. 이들은 교직과목이 현장과의 연계성이 결여된 채 단편적이고 분절적인 방식으로 가르쳐짐으로써, 왜 배우는지도 잘 알지 못한 채 일방적으로 이론을 설명하는 강의를 수강했고, 이후 현장에서 이론과 다른 현장에 당황하고 좌절감을 경험했다.

연구 참여자들은 현장 경험과 전문성이 부족 등 교직 교수자의 문제를 지적했는데, 교직과목 자체가 교육학 분과학문별로 분절되어 있는데다가 현장과 충분히 연계되지 못하다 보니 피상적 이론 강의에 그칠 수밖에 없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이는 교직과목을 대부분 시간강사가 담당하고 있는[10] 문제와도 연관된다고 볼 수 있다. 많은 선행연구들이 학교 현장 경험이 있는 교수요원 투입[19]과 함께 교사교육자의 역량향상과 수업개선을 강조하고 있지만[4] 잘 이루어지기 어려운 이유가 여기에 있다. 교직과목 교수자 중에는 자신의 교육현장 경력 부족의 문제를 인식하고 현장과의 괴리를 좁히기 위해 나름의 수업연구와 현장 교사를 초청하는 등 노력을 하기도 하지만 별다른 지원이 이루어지지 않아 사비로 충당하는 등[20] 개인 수준의 노력에 그치고 있어 교사교육자 스스로의 노력만을 요구하기엔 한계가 있다고 판단된다.

“3년 넘게 대학에서 배우는 내용보다 교육실습 때 현장에 가서 배우는 것이 더 많다”[4]는 선행연구의 언급처럼 본 연구 참여자들 역시 교육실습을 가장 도움이 된 과목으로 뽑았다. 연구 참여자 중 한 명은 “실습이 교대에서 배운 모든 것(r08, 01:01:14)”이라고 언급하기도 했다. 하지만, 선행연구에서 “수박 겉핥기[4]”라고 묘사된 것처럼 본 연구의 참여자들 역시 “현장 맛보기 이벤트”라며 부족한 실습시간과 수업기회 등의 아쉬움을 평가했다. 그나마 학교 현장을 경험할 수 있는 교육봉사 과목 역시 체계적인 프로그램 없이 “시간 채우는” 형태로 운영되다 보니 역부족일 수밖에 없었다. 이러한 현장 경험의 부족은 입직 후 학생 파악 및 지도의 어려움과 수업스킬 및 자신감 부족 등의 문제로 이어지게 된다. 특히 초등교사에게 수업 외의 학급경영 등 다양한 업무는 교육과정에서 이론적으로만 다루어지고 현장에서 통합적으로 다루어지지 못했기 때문에 초임교사들은 현장에서 수업 외의 다양한 업무에 어려움을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초임교사들이 학교 현장에 대한 경험의 불충분으로 실제 상황을 버겁게 느끼는 경우가 많으며[21], 특히 교육대학 환경과 현장의 차이로 인해 어려움을 느끼는 경우가 많다[22]. 이로 인해 현직교사, 특히 초임교사들은 교육실습 확대를 요구하고 있다[16]. 실제로 이러한 교육실습 확대 필요성에 따라 현재 “교육실습학기제”가 도입되

어 시범운영이 이루어지고 있지만, 초등에서는 기존의 교육실습과 비교했을 때 크게 차이가 있거나 개선된 방안이 아니며 구체적 시행방식에 있어 교육대학의 특성이 충분히 고려하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을 하고 있다[23]. 실습학기제의 효과에 대해서는 시범사업을 통해 검증이 필요한 문제이지만, 단순히 실습 시수 확대만이 문제가 아니라, 체계적이지 못한 교육실습 운영과 대학과 학교 현장의 연계성이 부족 문제[3,24] 역시 함께 해결되어야 할 문제이기 때문에 전체 양성과정 운영 체계 내에서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할 것이다.

#### 4.2 교직과목 개선요구

연구 참여자들이 제안한 교직과목 개선방안을 선행연구와 비교하여 시사점을 정리해보고자 한다.

첫째, 연구 참여자들은 실제 현장에서 필요한 지식과 스킬을 강조하며 배운 내용을 실제 적용해볼 수 있는 현장 기반 교육과정으로의 변화가 필요하다고 했다. “현장에서 필요한 지식”은 발문법이나 교구 및 교재 제작 등 활용할 수 있는 도구적인 스킬을 의미하는 것으로 볼 수도 있지만, 교육현장의 현상 이해에 도움이 되는 이론들도 포함된다. 실제 초등교사들이 학교 현장에서 가장 어려움을 겪는 생활지도와 관련해 발달이론이나 상담심리이론 등이 아동 이해와 인격적 관계 형성에 직접적 유용성을 제공한다고 평가하고 있다[25].

그러나 중요한 것은 도구적 쓸모가 있는지가 아니라, 이론적 지식이 추상적 수준에 머무르지 않고 교육현장과 연계될 수 있도록 어떻게 다루어질 수 있는가의 문제이다. 그래야 교직수업이 “그림자 공부[4]”에서 벗어나 구체적인 교육현장의 맥락에서 왜 필요한지 알고 확장적 적용을 통해 개념적 유용성을 갖도록[26]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이다.

둘째, 연구 참여자들이 제안한 “다양한 현장 경험 확대”는 교육실습에서 직접 실제 수업을 해볼 수 있는 기회와 다양한 수업을 참관할 경험 자체를 확대하는 것을 포함하지만 단순히 시간이나 횟수 같은 양적인 증가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연구 참여자들은 “보여주기”, “이벤트 식”으로 진행되는 수업참관이나 실습이 아닌 실제 자연스러운 학교의 일상에서 학생들과 상호작용하고 관찰할 수 있는 기회를 갖기 원했다. 또한, 교사의 업무가 등교부터 하교까지의 일과 흐름 속에서 수업과 생활지도 등을 모두 포함한 연속성과 통합성 내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담임교사”로서 주도적으로 판단하고 행동할 수 있는 기회가 필요하다고 했다. 물론 아직 교사 자격을 갖

추지 못한 예비교사가 담 임업무를 직접 수행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다. 따라서 방과 후 프로그램을 활용하여 지도교사의 관리감독 하에 직접 학생지도와 학급경영을 해볼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고 점진적으로 역할을 확대하는 식으로 현장 적응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이러한 다양한 현장 경험 확대를 위해서는 실습 시수 자체를 늘리는 것이 필요할 수 있지만, 제한된 이수 학점 내에서 무리하게 시간을 늘리는 것보다 교육 봉사 등과 같은 기존 교과목에서 학교 현장과 연계한 다양한 프로그램들을 개발하여 참여할 수 있도록 돕고, 교직이론이나 전공과목 등과 연계하여 배운 내용을 현장에 적용할 수 있도록 하는 체계적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등 교육과정 운영의 내실화와 품질 향상이 우선될 필요가 있다. 또 비교과 프로그램 등을 적극 활용하여 선배 교사와의 멘토링이나 실제 학생과의 만남 등을 할 수 있도록 돕는 방안 역시 고려할 수 있을 것이다.

### 5. 결론 및 제언

본 연구는 초등초임교사에 대한 심층면담을 통해 교직과목의 문제점과 개선요구를 탐색한 연구로서 연구결과와 시사점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초등초임교사들은 교육실습 과목을 제외하고 교직과목이 현장의 교직수행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했다. 교직과목이 현장과 무슨 관련이 있는지, 왜 배우야 하는지 체감되지 않은 채 “시험 보고 밀줄 치는” 강의를 듣고, 교육실습에서 “현장의 맛”만 겨우 본 채 교사가 된 그들은 준비되지 못한 채 교사가 되었다는 혼란과 좌절감을 겪고 있었다.

둘째, 초등초임교사들은 교직과목이 단편적이고 분절적인 접근과 현장과의 괴리를 극복하고, 실제 교실 현장에서 필요한 내용을 기반으로 교육되어야 한다고 생각했으며, 이론만 가르쳐주고 “알아서” 하라고 하지 말고 예비교사가 다양한 직간접적 현장 경험을 할 수 있도록 기회를 확대하고 이를 위한 체계적인 현장기반 프로그램과 정보제공, 지원 등이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고 했다.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초등교사 양성과정에서 교직과정의 개선방안에 대해 몇 가지 제언을 정리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교직과목을 통해 배운 지식이 교육현장에서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하려면 실제 교육현장의 맥락을 포함하여 수업이 개발될 필요가 있다. 꼭 실제 현장을 포

함하지 않더라도 현장의 이슈나 실제적 문제와 관련된 주제를 기반으로 예비교사들이 반성적 성찰을 하도록 함으로써 자신의 실천적 지식을 재구성할 수 있도록 하는 활동을 포함하여 수업이 설계될 필요가 있다[27].

둘째, 교직과목에서 습득한 지식을 예비교사들이 실제로 적용해 볼 수 있는 다양한 “연습의 장(practice field)”이 제공될 필요가 있다. 연습의 장은 실제 세계와는 다르지만 학습자들이 실제 현장에서 직면하게 될 유형의 활동을 연습할 수 있는 맥락을 의미한다[29]. 예비교사들이 요약되고 잘 정리된 지식을 그저 듣는 것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배운 지식을 실제 교실 상황에 적용하는 반성적 실천과정이 실제로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해서는 교직과목들이 서로 실제 현장을 매개로 통합-연계되어 설계될 필요가 있다[28].

셋째, 단순히 “정해진 것을 가르치는” 단편적 수업내용 전달 스킬 연습에서 벗어나 교육현장에서 이루어지는 교과업무의 연속성과 통합성, 전체성에 대한 고려를 통해 다양한 교육현장과 학생들의 특성을 이해하고 올바른 판단과 적절한 수행을 할 수 있도록 연습할 충분한 기회가 제공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서는 학교 현장과 연계하여 교육봉사 및 교육실습이 체계적이고 내실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프로그램 연구개발과 운영 지원이 필요하다.

넷째, 연구 결과에서는 교직교수자의 전문성과 현장 경험 부족이라는 문제점만 지적되었지만, 교육의 질이 결국 교사의 질을 넘어설 수 없다는 점을 고려할 때, 교직과목을 가르치는 교사교육자의 전문적 역량 개발이 이루어져야 할 필요가 있으며, 이를 위해서는 정책적 노력과 투자가 수반되어야 한다[17]. 단지 교직교수자에 대한 자격요건 강화나 역량강화교육 등 제도적 변화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좋은 교육과정과 교재 개발을 지원하는 등 교육여건 개선이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16].

본 연구는 기존 교직과목 개선 연구들이 주로 교원양성과정 개편 논의 수준에서 부분적으로 다루어지거나, 예비교사 대상의 인식과 연구에 치중되어 있던 것에서 벗어나, 초등 초임교사 관점에서 교직과목에 대한 문제점과 개선요구를 기술한 탐색적 연구로서 의미가 있다. 후속 연구로서 중등초임교사 관점에서의 동일한 연구를 통해 교직과목에 대한 초등과 중등의 차이를 보다 명확하게 드러낼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는 단지 16명만을 대상으로 각 1회씩만 진행한 소규모 연구라는 점에서 연구결과를 일반화하거나 타당화하기에 한계를 갖는다. 또한, 연구 참여자들이 제한

한 개선방안 역시 아이디어 수준의 내용이기 때문에 추후 이를 바탕으로 교직과목을 교육과정-수업실천-지원체제 등의 차원에서 어떻게 개선할 수 있을지 전문가 및 파이 연구 등을 통해 구체적인 개선방안을 도출하는 연구가 후속하여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또한 교실 현장의 실천 맥락을 중심으로 교직과목 간의 연결-통합을 시도하는 수업 개발 사례 등 다양한 교직과목 실천 연구가 더 활발하게 이루어져 교직교수자 간에 공유될 필요가 있다.

## References

- [1] Y. Kim, S. Seo, “Cooperation and Liaison, not Temporary but Fundamental Measures –The Problems and Tasks of Improvement of Primary School Teacher Education Curriculum”, *Korean Journal of Elementary Education*, Vol.31, No.2, pp.221-238, 2020. DOI: <https://doi.org/10.20972/kiee.31.2.202006.221>
- [2] K. J. Roh, “Critical Reflection on Pre-service Primary Teacher Education: Emic Issues from Beginning Primary Teachers”, *The Journal of Korean Teacher Education*, Vol.36, No.3, pp.343-372, 2019. DOI: <https://doi.org/10.24211/tikte.2019.36.3.343>
- [3] H. Ko, “Analysis on the Perception and Needs of College of Education, Graduates of Pre-Service Teacher Training Course, and Graduate Students of Education Regarding the Teaching Subjects for Secondary School Teachers”, *Korean Association For Learner-Centered Curriculum And Instruction*, Vol.19, No.18, pp.239-269, 2019. DOI: <https://doi.org/10.22251/ilcci.2019.19.18.239>
- [4] Y. S. Park, E. J. Heo, E. H. Hwang, “A Study of Innovation Tasks of Teacher Training Curriculum according to Educational Environment”, *The Journal of Korean Teacher Education*, Vol. 35, no. 1, pp.165-188, 2018. DOI: <https://doi.org/10.24211/tikte.2018.35.1.165>
- [5] I. Rim, “Exploring Improvement Direction Related to Secondary Teacher Training: Focusing on FGI for Pre-service Teachers”, *The Journal of Learner-Centered Curriculum and Instruction*, Vol. 19, no. 9, pp. 397-420, 2019. DOI: <https://doi.org/10.22251/ilcci.2019.19.9.397>
- [6] K. S. Kim, “The Direction of Teacher Training Changes”, *Teacher Education*, pp. 21-45, 2023.
- [7] J. A. Kim, “Pre-service Teachers’ Expectations and Value Perception of Teaching Class: Focused on Semantic Network Analysis”, *The Journal of Korean Teacher Education*, Vol.38, No.2, pp.245-268, 2021. DOI: <https://doi.org/10.24211/tikte.2021.38.2.245>
- [8] H. J. An, B. C. Kim, “A Qualitative Case Study of Undergraduate Students’ Experiences in Teaching

- Profession Course: Based on the General Undergraduates of the Teaching Profession Course*, *The Korea Educational Review*, Vol.24, No.4, pp.221-245, 2018.  
DOI: <https://doi.org/10.29318/KER.24.4.9>
- [9] M. J. Park, "A Study on Pre-service Teachers' Perceptions and Needs for Teaching Profession Courses", *The Journal of Educational Research*, Vol.13, No.3, pp.215-241, 2015.  
UCI: G704-SER00010453.2015.13.3.009
- [10] G. S. Kim, J. A. Kim, D. G. Kim, Y. Kim, S. K. Nam, E. J. Lee, "Status Analysis of Teacher Training Curriculum: Focusing on Experienced Curriculum", *Korean Education Development Institute Research Report* RR 2009-07, 2009.
- [11] C. K. Son, "A Study on Secondary School Teachers' Needs Assessment for Curriculum Development of College of Education", *The Journal of Curriculum Studies*, Vol. 22, no. 4, pp. 251-271, 2004.  
UCI: G704-000671.2004.22.4.011
- [12] B. C. Kim, "Perceptions of New Teachers for a Qualitative Case Study on the Meaning of Education at the College of Education", *The Journal of Korean Teacher Education*, Vol.25, No.2, pp.105-137, 2008.  
DOI: <https://doi.org/10.24211/tjkte.2008.25.2.105>
- [13] S. W. Choi, "Reconstruction of Pedagogical Curriculum for Teachers: A New Direction and Tasks", *The Journal of Educational Principles*, Vol.17, No.2, pp.49-70, 2012.  
UCI: G704-002128.2012.17.2.004
- [14] Y. G. Lim, "Issues and Future Directions of Teaching Profession Courses in Korea", *The Journal of Korean Teacher Education*, Vol.30, No.4, pp.189-213, 2013.  
DOI: <https://doi.org/10.24211/tjkte.2013.30.4.189>
- [15] H. S. Woo, "A Comparison of Faculty and Students' Perceptions of the Teaching Profession Course and Practice", *Education and Science Research*, Vol.46, No.2, pp.133-157, 2015.  
DOI: <https://doi.org/10.15854/jes.2015.06.46.2.133>
- [16] M. K. Jeong, G. S. Kim, S. C. Yu, B. C. Kim, S. W. Park, "Analysis of Elementary and Secondary Teachers' Requirements for Teacher Training Curriculum", *The Journal of Korean Teacher Education*, Vol.28, No.3, pp.287-306, 2011.
- [17] S. H. Baek, "Novice Teachers' Perceptions on Experiences of Teacher Education Curriculum in terms of Implementing Character Education", *Kyungin University Education Research Institute Educational Review*, Vol.39, No.2, pp.189-207, 2019.  
DOI: <https://doi.org/10.25020/je.2019.39.2.189>
- [18] S. C. Lee, "Need Analysis of In-Service Secondary Teachers on Educational Contents of Teaching Profession Practice Course", *The Journal of Educational Administration*, Vol.30, No.1, pp.311-336, 2012.  
UCI: G704-000511.2012.30.1.026
- [19] N. K. Park, S. J. Lim, "Navigating the Concept of School Field in the Teaching Subjects: Focusing on the Perspective of the Professional Society and Related Groups", *The Journal of Korean Teacher Education*, Vol.37, No.2, pp.27-53, 2020.  
DOI: <https://doi.org/10.24211/tjkte.2020.37.2.27>
- [20] D. Y. Lee, "A Study on the Improvement of the Teaching Profession Course in College of Education Using A Grounded Theory", *The Journal of Korean Teacher Education*, Vol. 37, no. 2, pp.79-105, 2020.  
DOI: <https://doi.org/10.24211/tjkte.2020.37.2.79>
- [21] S. J. Hwang, "A Study on the Difficulties of Beginning Teacher's and their Experience in coping with the School Atmosphere (in Elementary School)", *Journal of Studies on Schools and Teaching (JSST)*, Vol. 4, no. 2, pp.35-55, 2019.  
DOI: <https://doi.org/10.23041/jsst.2019.4.2.003>
- [22] J. W. Seo, Y. S. Jeon, "Reflective Research about the Influence of University Curriculums on a Novice Elementary Teacher's Science Teaching", *Korean Journal of Elementary Education*, Vol. 27, no. 3, pp.115-127, 2016.  
DOI: <https://doi.org/10.20972/kjee.27.3.201609.115>
- [23] S. H. Jeong, Y. G. Kim, B. H. Oh, J. W. Kim, "Analysis of the Practicum Semester System: Based on the Perceptions of the Professors from the University of Education", *Korean Journal of Elementary Education*, Vol. 34, no. 1, pp.63-87, 2023.
- [24] S. J. Park, J. W. Park, "An Analysis of Stakeholders' Perceptions of Improvements made to the Student-Teacher Training Practicum System", *The Journal of Korean Education*, Vol. 46, no. 1, pp.111-135, 2019.  
DOI: <https://doi.org/10.22804/jke.2019.46.1.004>
- [25] E. J. Jeong, "A Study on Elementary Teachers' Recognition of the Practical Usefulness of Education Theory", *Elementary Education Research*, Vol.20, No.1, pp.62-82, 2013.
- [26] S. J. Yoon, "An Analysis of the Impracticality of Educational Research Knowledge for Teachers", *The Journal of Korean Teacher Education*, Vol. 30, no. 2, pp.77-97, 2013.  
DOI: <https://doi.org/10.24211/tjkte.2013.30.2.77>
- [27] E. J. Kim, "A Study on Practical Knowledge: The Implication on Teacher Education and Problem", *The Journal of Korean Teacher Education*, Vol. 27, no. 4, pp.27-46, 2010.
- [28] D. J. Cho, J. H. Park, S. G. Yang, "A Study of Development and Implementation of School-based Integrated Program for Teacher Preparation Courses", *The Journal of Korean Teacher Education*, Vol. 32, no. 3, pp.213-245, 2015.  
DOI: <https://doi.org/10.24211/tjkte.2015.32.3.213>
- [29] D. H. Jonassen, S. M. Land, "Theoretical Foundations of Learning Environments," 2nd edition, translated by S. Han and I. Han, Seoul: Hakjisa, p.65, 2014.

김 주 영(Jooyeong Kim)

[정회원]



- 2008년 ~ 현재 : ㈜스토리이십일  
교육콘텐츠 개발 (실장)
- 2020년~ 2021년 : 제주대학교  
교육학과 박사과정 (수료)
- 2022년 ~ 현재 : 제주대학교 교직  
과목 강사 (교육방법 및 교육공학)

〈관심분야〉

교수설계, 디지털 교수역량, 에듀테크

김 경 남(Kyoung-Nam Kim)

[정회원]



- 1990년 2월 : 진주교육대학교  
초등교육
- 2006년 2월 : 한국교원대학교  
교육학과 (교육학석사)
- 2023년 2월 : 제주대학교 교육학과  
박사과정 수료
- 2023년 8월 ~ 현재 : 인화초등학교  
수석교사
- 2021년 9월 ~ 현재 : 제주대학교 교육학과 강사

〈관심분야〉

교육방법, 초등교육, 평생교육, 교사학습공동체

박 정 환(Jung-Hwan Park)

[종신회원]



- 1992년 2월 : 원광대학교 교육학과  
(문학사)
- 1994년 2월 : 원광대학교 교육학과  
(문학석사)
- 2001년 2월 : 한국교원대학교  
교육학과 (교육학박사)
- 2004년 9월 ~ 현재 : 제주대학교  
교육학과 교수

〈관심분야〉

교육공학, Smart-Education, 상담공학